그대는 자비보살

진창호 나누며하나되기 사무처장

하루하루 모여 이룬 100억원 나눔 “불자들 공덕 결과”

코로나19 이후 5년만에 달성
기업 후원 연결이 활동의 핵심
성철 스님 열반으로 불교 인연
금융맨서 불교 외호 발원 세워
신뢰 쌓이면 자연스레 길 열려
“숫자 넘어 나눔 질 높이고 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진창호 나누며하나되기 사무처장이 남북 교류, 국제 지원, 취약계층 나눔까지 다양한 활동이 소개된 판넬 앞에 섰다. 진 처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쌓이면 길은 저절로 열린다”고 말했다.



2026년 1월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나누며하나되기의 활동을 설명하는 모습.



진 처장은 30대 시절 조계사 청년회와 대불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활동가로 지내며 청년불자들과 호흡하고 다양한 불교는 그때부터 그의 삶 속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스며들었다.



하루하루가 모여 100억원의 물품 나눔이 이뤄질 수 있었다.

“100억원이라는 숫자를 떠올릴 때마다 물품을 받고 기뻐하는 이웃들과 아무 조건 없이 물품을 내준 기업관계자 얼굴들이 먼저 떠오르죠.”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며 설립한 NGO (사)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보광 스님)가 최근 소외계층 물품 후원 누적 100억원을 달성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초기부터 나눔을 시작한 지 5년만의 성과다. 생필품 하나, 마스크 한 장, 손소독제 한 병이 필요한 현장과 이웃들의 사연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결과로, 그 중심에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진창호(법명 보인) 나누며하나되기 사무처장이 있다.

진창호 사무처장은 “100억원이라는 숫자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얼굴들이었다”고 말했다. “지원 물품을 전달받고 ‘다시 버틸 힘이 생겼다’고 말하던 어르신들, 시설 관계자들, 트럭 뒤에서 쉼 없이 물품 상자를 옮기던 현장 봉사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면서 “성과는 나누며하나되기가 혼자 잘해서라기보다 함께 마음을 모아 준 기업과 시민, 스님과 불자들의 공덕이 모인 결과”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누며하나되기의 물품 후원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다. 기업에서 후원받은 물품을 가장 필요한 곳으로 연결하는 과정 자체가 활동의 핵심이다. 하루일과가 늘 현장에서 시작되고 현장에서 끝난다는 진 사무처장은 “물품은 창고에 쌓여 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닿는 순간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물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끝까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단기간의 성과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없이 많은 전화와 발품이 쌓여 있는 것이다.

나누며하나되기는 2025년 한 해에만 41회에 걸쳐 160개 단체에 23억원 상당 물품을 후원했다. 팬데믹 장기화와 사회적 고립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깊어졌고, 후폭풍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진 처장의 하루는 분주하기만 하다.

진 처장은 “현장을 다녀올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조금 더 챙겨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아쉬움은 곧 다음 현장을 준비하는 힘이 된다고도 했다. 불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아주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있다는 자각이 일을 추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진 처장의 불교 인연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 졸업 후 기자로 일하던 1993년, TV 뉴스에서 접한 성철 스님 열반 소식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 스님의 열반이 주요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사회 전체가 깊은 애도 분위기에 잠긴 모습은 그에게 강렬한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토록 많은 이들이 존경하고 슬퍼할까.’

궁금했다. 그 길로 성철 스님의 저서를 찾아 읽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영원한 자유〉 등에서 수행자의 엄정함과 함께 자비의 언어를 만났다. 불교는 그때부터 그의 삶 속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스며들었다.

1995년, 진 처장은 성철 스님이 주석했던 해인사 백련암으로 향했다. 새벽 2시에 도착한 암자에서 절하는 법도 모른 채 3000배를 시작했다. 맨바닥에 올린 절로 무릎이 까지고 피가 흘렀다. 그러나 가슴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다. 그날 불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었다. ‘보인’이라는 법명도 받았다. 휴가 때마다 백련암을 찾아 3000배 정진을 하고 수련회에 동참했다. 불교는 점차 그의 삶의 중심이 됐다.

이후 그의 삶은 순탄한 듯했다. 금융권에 몸담으며 ‘억대 연봉’ 성공 가도를 달렸다. 거듭되는 성과에 여의도에서 ‘잘나가는 사람’이 됐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판단 착오는 한순간에 삶을 무너뜨렸다. 실패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남겼다.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 극단적인 생각까지 스쳤던 나날들. 그를 붙잡아 준 것은 다시 수행이었다. 매일 3~4시쯤 장을 마감하면 조계사를 찾았다. 그렇게 1080배를 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조금씩 주변 사람들의 손해도 회복됐고, 그의 마음도 차츰 가벼워졌다.

시련을 지나 30대에 접어든 그는 한국불교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발원을 세웠다. 조계사청년회 활동을 시작으로 청년불자들과 호흡했다. 대한불교청년회 활동으로 전국을 오가며 청년불자 조직 재건에 힘을 쏟았다. 훼불과 종교편향 논란이 거셌던 시기에는 거리로 나서 불교계를 외호했다. 그에게 불교는 늘 ‘현장’이었다.

2018년, 그는 나누며하나되기와 인연을 맺었다. 남북 교류, 국제 지원, 취약계층 나눔까지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 그의 중심은 분명했다. 불교의 자비를 구호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 진 처장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필요한 곳부터 하자는 원칙을 세웠다. 불교의 자비를 가장 구체적은 방식으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원칙은 꾸준한 신뢰로 이어졌고 기업과 시민들의 참여가 점차 늘어났다. 그리고 100억원 물품 후원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진 처장은 100억이라는 숫자에 대해 “목표라기보다 자연스럽게 도달한 지점”이라며 “나누며하나되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불교 NGO로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쌓이면 길은 저절로 열린다고 말한 그는 “기업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돌리자 기부가 이어졌다”며 “숫자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고, 사람과의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 처장은 “숫자에 매달리기보다 나눔의 질을 높이고 싶다”고 했다. 환경 문제, 기후 위기 역시 자비 실천의 중요한 영역으로 보고 있다. “자비는 사람을 넘어 생명 전체로 확장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진 처장은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을 가슴에 늘 품고 있다고 했다.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 휩쓸리지 않고 주체적인 삶의 태도 속에서 매 순간 스스로를 일깨우기 위해서다.

“하루하루는 작아 보이지만, 그 하루가 모여 100억원이 됐죠. 나와 이웃이라는 각각의 물줄기가 결국 행복이라는 하나의 강으로 흐를 수 있도록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 흐름을 잇는 역할을 묵묵히 해 나가겠습니다.”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백문이 불여일견 !
스님 자신이 기존 법당의 시설 마이크와 본사의 초간단 (디지털) 견본의 마이크를 양손에 잡고 번갈아가며 염불소리 테스트를 해 볼시 세상에 이렇게 차이가?!!! 의 놀라운 소리 격차를 체험 후 귀 법당 기존시설의 1/2가격으로 시설상담
(마이크소리 테스트비용 한잔!)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본사는 설악 신흥사와 남해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로 단 한 곳도 고장 전화가 없음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190~390만원 이동식 방생용도 전문판매



현 판매 시설자 박 공 희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방송시설 전문
Projector EPSON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 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